

“교육차별 · 교육격차 없도록 최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차별 · 혐오 일상적 발생 김승환 도교육감, 다문화가정 등 피해 없도록 주문

지난 20일 초등 1~3학년용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모든 학교가 온라인 개학에 들어간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차별,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줄 것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사람들이 집단과 집단을 분리하고, 분

리된 집단의 다수가 적은 쪽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 서양에서는 코로나를 포함해서 아시아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 간에 분리가 일어나고, 이것이 교육으로 넘어오면 다문화가

정 자녀를 상대로 하는 불이익과 차별, 혐오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세심히 살펴 교육차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질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접근을 통해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다. 김 교육감은 “스마트 기기는 충분히 공급이 된 만큼 기기 부족에 따른 격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작동하는 데 있어 서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

로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각 과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과정에 교사들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규모가 큰 학교는 여러 교사들이 힘을 합쳐 양질의 수업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학교나 순회교사로 운영되는 학교는 어려움이 크다”면서 “양질의 수업 자료를 교사들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평균경쟁률 4.8대1

160명 모집에 총 760명 응시

전북도교육청의 2020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에 총 760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가 강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선발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함으로써 9월 이후 교육공무직원 정년 퇴직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게 됐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20일(토·일요일 제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5개 직종 160명 모집에 총 760명이 지원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종별로는 조리종사원이 전주 등 13개 시·군(무주 제외)에서 138명을 모집하는데 402명이 응시해 2.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급식보조는 2대1, 전문상담사는 7.5대1, 특수교육지도사는 29.5대1, 교육복지사는 3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5월16일에 실시하는 1차 소양평가 시험장소를 5월 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를 통해 공고하고,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6월20일에 실시해 오는 6월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시험일정과 합격자발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란에 게재된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1일 오후 2시 아우디 중산 전주서비스센터 회의실에서 (주)아우디코리아, (주)중산모터스와 채용연계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비전대, 아우디코리아 · 중산모터스와 손잡다

채용연계 등 산학협력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1일 오후 2시 아우디 중산 전주서비스센터 회의실에서 (주)아우디코리아, (주)중산모터스와 채용연계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홍순직 총장,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주)아우디코리아 박민성 상무, (주)중산모터스 김영수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약으로 전주비전대와 (주)아우디코리아, (주)중산모터스는 ▲재학생

의 현장 실습 및 졸업생의 취업 연계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 국내 자동차 기술 발전과 미래의 기술 교육과정 개발 지원 역할 ▲ 취업특강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수 대표이사는 “2019년 산학협력력을 시작으로 전주비전대와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로봇학과 학생들을 위한 실습용 차량을 기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차량 기증을 통해 다양한 현장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 깊이 있는 훈련 과정을 도입해 추후 학생들의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Vorsprung

durch Technik(포(르)스프룽 더(르)취테크니: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기업 슬로건을 바탕으로 아우디 중산모터스는 보유한 전문적인 아우디 기술력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직 총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전주비전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고가의 차량을 기증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며, “최신형 자동차를 실습교육에 활용해 재학생들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인재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열린 체육회 만들 것”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 지역 인프라 확충 강조



“임실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은 일회성 체육행사는 줄이고 지역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 김 회장은 임실군체육회만의 고유 사업모형을 발굴, 종목단체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도·농간 교류 등을 통해 임실군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 회장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읍·면을 돌아다니며 걷기대회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체육에 투자하면 군민들이 건강해져 의료비가 줄어드는 만큼 임실체육회만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자치구와 경기도 시·군 등과 결연을 맺어 체육행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과도 교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양궁장과 사격장 등은 있어 특정 종목의 대회는 가능하지만, 체육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종합대회 개최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체육시설이 많아도 군민들이 모르면 전혀 쓸모없게 된다”며 “모든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네 체육시설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군민들로부터 ‘민간 체육회로 바뀐 뒤 더 좋아졌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체육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온라인 수업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교의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지난 9일부터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생과 교사가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편성해 온라인 학습 교사지원단 운영, 일일 학습 콘텐츠 제공, 정보화 기기 등 지원을 했다.

특히, 모든 교사가 원격수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실시간 연수를 4차례 실시했으며, 학교별 대표교원 1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해 다양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그간 진행된 원격수업은 녹화강의를 비롯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교사가 학생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화상수업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그리고 앞의 유형들을 혼합하거나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한 대체프로그램 운영 등의 형태로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개학을 단순한 응급책이 아닌 원격교육

체계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춘 온라인 기반 수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집콕운동’ 홍보

전북체육회(회장 정갑선)는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집콕운동’을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있다.

집콕운동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국민 건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집콕운동 영상은 아의 체육활동이 어려워진 국민들의 실내용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국민체조, 고무장갑을 이용한 틈새운동, 각종 홈트레이닝 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이에 전북체육회도 도민들이 손쉽게 집콕운동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유튜브(대한체육회 TV)를 전북체육회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에서도 연동될 수 있게 설정했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에게도 집콕운동을 안내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